

이경희 미니시리즈의 극작술 연구*

김윤정**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제어: 낭만적 사랑, 결핍, 죽음, 도덕 교과서, 비관적 세계인식

1. 서론

텔레비전 드라마는 오랫동안 예술 장에서 논하기에는 모호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¹⁾ 즉 예술과 오락의 경계에 서 있는 장르로 여겨져 왔다. 이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틈만 나면 저절로 망막을 파고드는 ‘일상’²⁾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텔레비전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상성’ 이야말로 텔레비전 드라마가 예술임을 증명하는 특성이기도 한데, 삶이 녹록지 않은 대중의 예술적 욕망을 일상적으로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한 예술이 바로 드라마이기 때문이다.³⁾ 최근에 문학과 문화연구의 영역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그 어떠한 대중문화보다도 진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문체적 텍스트⁴⁾로 위상이 상향조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에 대한 작가론은 아직 드문 편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발전 속에서 개성 있는 작가의식을 구축하는 작가들의 출현이 돋보이고 있지만, 아직 김수현과 노희경의 작가론 정도가 전부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 이경희는 주목을 요한다. 그녀는 10년이 넘는 창작 생활 동안 자기만의 세계를 꾸준히 구축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자와 영상의 등가적 절합으로 완성되는 텔레비

<차례>

1. 서론
2. 표면의 서사: 낭만적 사랑의 서사
3. 이면의 서사: 도덕 교과서적 가르침
4. 이경희의 비관적 세계인식
5.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경희의 작가론을 시도해 보았다.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은 표면적으로는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경희 미니시리즈들의 주인공들은 모두 결핍된 인물들인데, 이들에게 서로의 결핍은 서로를 알아보는 표지가 됨으로써 그 사랑의 운명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더욱 강화시킨다. 게다가 대부분의 멜로드라마와 달리 죽음으로 귀결되는 결말 역시 사랑의 그러한 성격을 더욱 더 부각시킨다. 그런데,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은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서사 이면에서는 도덕 교과서적인 가르침을 전파한다. 가족을 사랑해라,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라,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을 믿어라 등등.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지켜올 수도, 따분할 수도 있는 도덕 교과서가 곁에 덧입혀진 낭만적 사랑의 서사 때문에 흥미로움을 잃지 않고 있다. 이처럼 표면의 서사와 이면의 서사가 씨줄과 날줄처럼 절묘하게 교차하고 있는 것, 그래서 ‘재미’와 ‘교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경희 드라마가 성취해낸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경희는 지독한 비관주의자다. 그녀가 다루는 체비족, 해외일양, 안락사, 미혼모, 에이즈 등의 사회성 짙은 이슈들, 버림받은 사람들, 에이즈 등의 이유로 쉽게 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이기심 등은, 그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고맙습니다>와 같은 작품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기에 ‘동화’라고 이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그러한 소망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1) 박노현,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9, 27면.

2) 위의 책, 32면.

3) 윤석진, 『김삼순과 장준혁의 드라마 공방전』, 북마크, 2007, 5면.

4) 박노현, 앞의 책, 46면.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과제번호 2010-0039)에 의해 지원받았음.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조교수

전 드라마는 극작가와 연출가 모두를 텍스트에 대한 미적 주체-공동의 저자로 간주해야 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 공동 작업이 ‘000 극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올 때는 그 텍스트는 어쩔 수 없이 그 극작가에게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발표된 이경희의 모든 작품들이 연출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경희는 ‘뚝심의 작가’⁶⁾라는 표현답게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다.⁷⁾

이경희는 MBC 베스트극장 <소영이 그그 엄마>라는 단막극으로 등단하여, 그 동안 일요일아침드라마 <사랑밖엔 난 몰라>, 주말연속극 <꼭지> 등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그러나, 이경희를 스타급 작가로 올려놓은 것은 그녀의 미니시리즈들이다. 그녀의 첫 미니시리즈 <순정>(KBS 월화미니시리즈, 정성호 연출, 2001.9.3~2001.10.30)은 시청률 60%를 달리던 <여인천하>와 맞붙어 처절하게 깨졌지만,⁸⁾ 얼마 동안의 휴식기 후에 써낸 <상두야 학교 가자>(KBS 월화미니시리즈, 이형민 연출, 2003.9.15~ 2003.11.4) 이후, <미안하다 사랑한다>(KBS 월화미니시리즈, 이형민 연출, 2004.11.8~2004.12.28), <이 죽일 놈의 사랑>(KBS 월화미니시리즈, 김규태 연출, 2005.10.31~2005.12.20), <고맙습니다>(MBC 수목미니시리즈, 이재동 연출, 2007.3.21~2007.5.10),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SBS 수목미니시리즈, 최문석 연출, 2009.12.2~2010.1.28)는 작품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성공을 거뒀다. 뿐만 아니라, 이 미니시리즈들은 ‘이경희표 드라마’⁹⁾라는 이

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이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드문 편이다. 그나마도 가장 인기를 끌었던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¹⁰⁾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외에 김수현과 노희경에 대한 작가론적 연구들도 참고하였다. 본고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경희에 대한 작가론이기 때문이다.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은 기본적으로 멜로드라마의 형식을 띠고 있다. 멜로드라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르적 관습으로 낭만적 사랑이라는 소재, 공식적 플롯과 과장된 표현, 이분법적으로 대립하며 성별에 따라 유형화되는 인물구도, 부르주아적 가치를 옹호하는 주제 구조의 순환성, 강렬한 정감, 도식화된 윤리와 도덕, 극한 상태의 존재, 악의 일시적 승리와 영원한 패배, 미덕의 필연적 보상 등의 구성요소 등¹¹⁾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멜로드라마로 부르는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감성을 고무하고 극대화하는 데 가장 유용한 소재인 낭만적 사랑을 주요한 서사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¹²⁾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 역시 다른 멜로드라마들처럼 낭만적 사랑을 주요한 서사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의 서사일 뿐 항상 그 ‘이면’에는 도덕

10) 윤석진, 「TV드라마의 현실성 확보 방식 고찰-KBS 미니시리즈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21, 2005.

윤석진, 『김삼순과 장준혁의 드라마 공방전』, 북마크, 2007.

이주라, 「200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에 그려진 사랑의 모습-〈네 멋대로 해라〉, 〈발리에서 생긴 일〉, 〈미안하다 사랑한다〉」,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1: 멜로드라마』, 이론과실천, 2007.

강영희, 김수현론, 『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문화연구, 1996.

김포천 외, 『김수현 드라마에 대하여』, 숲, 1998.

이경숙, 김수현 드라마의 수사학적 효과 산출 방식 연구1, 『한국극예술연구』 25, 2007.

이다운, 노희경 드라마의 등장인물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9.

11) 김지영, 「순정만화의 멜로드라마적 서사 형식과 감성의 정치학」, 위의 책, 399면.

12) 위의 논문, 400면.

5) 위의 책, 175~176면.

6) 정성호, 「이경희 작가를 말한다」(김주영, 「희망의 또 다른 이름, 그래도 사랑이다」, 『방송작가』 48, 2010.3, 9면).

7) 그녀는 대사의 반복(“내가 만만하니까 만두로 보이냐?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냐?”(〈상두야 학교 가자〉와 〈고맙습니다〉), “너는 사랑을 믿니?”(〈상두야 학교 가자〉와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내 사랑은 사랑이 아니냐?”(〈상두야 학교 가자〉와 〈이 죽일 놈의 사랑〉 등)을 통해서도 자기 작품의 통일성을 드러낸다.

8) 김주영, 앞의 글, 7면.

9) 위의 글, 4면.

교과서적인 서사가 함께 맞물려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표면의 서사: 낭만적 사랑의 서사

낭만적 사랑은 기본적으로 로맨스적인 환상을 품고 있다. 그것은 청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랑 등의 ‘낭만적인 신화’이다.¹³⁾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낭만적 사랑은 근대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것으로, 로맨스적 환상에 일부일체제 결혼과 모성이 결합되어 탄생한 것이라는 사실이다.¹⁴⁾ 따라서, 이러한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힘이 되어왔다. 근대의 산물인 멜로드라마 양식에서 다루어지는 낭만적 사랑이 대부분 행복한 결혼이라는 해피 엔딩을 향해 가는 것은 바로 낭만적 사랑 자체가 그러한 개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은 표면적으로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취하고 있다.

<상두야 학교 가자>(2003)는 이경희가 <순정>의 실패 이후 쓴 첫 작품이다. “<상두>는 저에게 희망을 가르쳐준 드라마예요 <상두>를 쓰기 직전에 작가를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능력의 한계도 느끼고, 한 번 실패하면 너무나 차갑게 돌변하는 이 방송판에 대한 회의도 들고...”¹⁵⁾라는 이경희의 회고에 기대어 보면, 그녀가 <순정>의 실패 이후에 겪었던 고통

은 매우 컸던 듯하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딘 후에 그녀가 내놓은 <상두야 학교 가자>에는 이경희 드라마의 모든 원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녀의 고향인 남해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주인공 상두(정지훈 분)와 은환(공효진 분)은 8살 때 처음 만난 후,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환은 동네사람들 깃돈을 떼먹은 새엄마 공심란(정애리 분)을 따라서 남해를 떠나게 되고, 상두는 은환이 아버지 유품을 지켜주려다 일꾼 한 명을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면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 소년원에서 나온 상두는 학교에서도 퇴학당하고 양부모에게까지 버림받고 남해를 떠나게 된다. 10년 뒤, 재회한 은환과 상두는 상두의 직업 때문에, 보리의 존재 때문에, 보리의 어머니이자 공심란의 친딸인 세라의 등장 때문에 멜로드라마의 공식대로 많은 고통을 겪지만,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들에게 사랑은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민석: 여기서 그쳐. 더 상처 입고 다치기 전에, 니가 그만 가. 그게 사랑이야.

상두: 쥐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자, 그 생각을 한 사백 번쯤 했다. 뛰어 내리려고 한강 다리를 오백 번도 넘게 갔고 근데, 그때마다 누가 내 팔목을 잡고 다리를 붙잡더라. 은환이랑 보리였어. 나한테 그 게 사랑이야. 날 한 구백 번쯤 살려줬는데, 지금 와서 날 죽인다 그래도 즐겁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난. 상처 받고 다치는 건 무섭지 않아. 그런 건 두렵지도 않았어. 미안하다. (<상두야 학교 가자>, 10회) (강조-인용자)

은환: 상두는... 그냥 내 인생이야, 민석씨. (<상두야 학교 가자>, 10회) (강조-인용자)

13) J. Salsby,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길 역, 민음사, 1985, 11~34면.

14) A. Giddens,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1996, 81~84면.

15) 김주영, 앞의 글, 7면.

첫 번째 인용문은 더 상처 입고 다치기 전에 그만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민석에게, ‘자신의 생명=은환’이라고 상두가 대답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민석의 프로포즈를 거절한 은환이, 왜 내가 아니고 차상두냐고 울부짖는 민석에게 대답하는 말이다. 상두와 은환이가 내뿜듯이 이들에게 사랑은 그냥 자신의 삶과 동의어인 것이다. 이성을 넘어선 영역.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영역.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낭만적 사랑에 속한다. 낭만적 사랑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나 의식의 통제 영역 바깥에서 온통 사랑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사랑의 절대적 가치를 믿고 이를 추구하는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¹⁶⁾

그런데, 이러한 낭만적 사랑이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에서는 ‘낭만적’임을 넘어 너무나 절대적이고 운명적이어서 처절하기까지 한데, 이는 낭만적 사랑의 주체들이 모두 ‘결핍’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강박관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하게 결핍을 이룰 수 있는 타인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¹⁷⁾인데, 즉 낭만적 사랑은 어떤 정신적 커뮤니케이션, 즉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성격을 띠는 영혼의 만남을 가정하는 것으로, 낭만적 사랑에 빠진 개인에게 그 사랑의 대상인 타자는, 단지 그가 단 사람 아닌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결여를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¹⁸⁾ 낭만적 사랑 개념이 갖고 있는 이 유일한 ‘절대성’이 이경희의 드라마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표지가 서로를 부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결핍된 인물들은 이경희 드라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결핍의

16) 장수익, 『나도향 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문제』,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 1999, 364면.

17) L.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Weidenfeld and Nicolson, 1977, p.282(J. Salsby, 앞의 책, 32면에서 재인용).

18) A. Giddens, 앞의 책, 85~86면.

원인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버림받음’이고, 하나는 ‘잃어버림’이다. ‘버림받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인물은 <상두야 학교 가자>의 상두,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무혁, <이 죽일 놈의 사랑>의 복구, <고맙습니다>의 영신,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의 강진이다. 상두는 삼촌에게 버려져 입양되지만 다시 입양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며, 무혁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려져 해외로 입양된다. 복구는 엄마의 죽음 이후 아버지에게서, 또한 형에게서 버림받는다. 영신은 미혼모이며, 강진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들과 달리 ‘잃어버림’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인물들은 <상두야 학교 가자>의 은환,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은채, <이 죽일 놈의 사랑>의 은석, <고맙습니다>의 기서,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의 지완이다. 새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은환은 결핍의 상처를 많이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의 유물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을 보면 그녀 역시 결핍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은채는 겉으로는 아무 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지만, 오랜 세월 짝사랑하던 최윤을 단짝친구 민주에게 빼앗겼다는 점에서는 역시 결핍의 상처를 안고 있다. 이외에 은석과 기서, 지완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의해 큰 상실을 경험하는데, 은석에게는 엄마가, 기서에게는 여자친구가, 지완에게는 오빠가 결핍의 근원으로 존재한다.

이를 간단하게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작품명	등장인물	결핍의 원인		결핍된 것
		버림받음	잃어버림	
상두야 학교 가자	상두	0		부모
	은환		0	아버지
미안하다 사랑한다	무혁	0		부모
	은채		0	최윤
이 죽일 놈의 사랑	복구	0		부모, 형
	은석		0	엄마

고맙습니다	기서		0	여자친구
	영신	0		남편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강진	0		아버지
	지완		0	오빠

이 표를 보면, 각 작품의 두 남녀 주인공들이 모두 ‘버림받음’에 의해서이건, ‘잃어버림’에 의해서이건 결핍을 느끼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결핍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인물들이야말로 이경희 드라마만의 전형적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 그 결핍을 메워 가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표지가 서로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1>



<사진 2>

<사진1>은 은환이가 아버지의 유품인 유성기를 지키기 위해 인부에게 매달리는 장면이다. 은환의 새엄마 공심란(정애리 분)이 마을 사람들 젓돈을 떼먹고 숨어버리자 사람들이 몰려와 은환이네 집 물건들을 실어 나가는데, 아버지의 유품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은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상두는 그 유품을 되찾기 위해 트럭 위에서 일꾼들과 싸운다. 그것은 이 유품이 은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상두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사진2>는 다방 마담인 엄마에게 추잡한 것을

하는 남자의 먹살을 잡았다가 결국 엄마의 만류 때문에 밖으로 뛰쳐나온 강진이, 밖에서 듣고 있던 지완과 마주치는 장면이다. 이때 흘리는 지완의 눈물은 강진의 아픔에 대한 공감의 눈물이다. 이렇게 서로의 결핍의 표지를 잘 인식하고 있기에 이들의 사랑은 너무나 운명적이고 절대적이어서 치절하기까지 한 것이다.

특히,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에서는 행복한 결혼을 포함하고 있는 낭만적 사랑의 개념이 뒤집어지는데, 두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강렬한 결말은 그 치절함을 더욱 더 부각시킴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그 사랑이 운명적임을 받아들여게끔 한다. 그런 면에서도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은 다른 텔레비전 멜로드라마들과는 차별성을 보이는데, 이경희의 초기 세 작품 <상두야 학교 가자>¹⁹⁾와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죽임놈의 사랑>에서 낭만적 사랑은 죽음으로 귀결된다.²⁰⁾

19) 영화나 TV드라마 장르들은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장르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데, 이러한 장르의 규칙이 잘못 사용되면 관객과 시청자들은 이를 즉시 알아차리고 험담을 퍼붓게 된다(R. McKee,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고영범·이승민 역, 황금가지, 2002, 140~141면). <상두야 학교 가자>처럼 로맨틱 코미디의 분위기로 일관되던 작품이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은 장르의 법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흥미가 감소되고, 상두와 은환의 죽음을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20) 최근의 드라마들에서는 ‘낭만적 사랑이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지는’ 멜로드라마의 전형적인 양식을 파괴하는 경우가 꽤 있다. 특히, <발리에서 생긴 일>(KBS 수목미니시리즈, 김기호 작, 최문석 연출, 2004)은 이러한 면에서의 파격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작품이었다. 이 작품에서 남주인공 정재민(조인성 분)은 여주인공 이수정(하지원 분)에게 오피스텔을 주면서 ‘결혼만 빼고 다 해주겠다’고 말함으로써 낭만적 사랑이 행복한 결혼으로 끝인하는 멜로드라마의 전형적인 양식을 깨고 있다. 이를 통해 <발리에서 생긴 일>은 낭만적 사랑의 환상을 깨고 너무나 섬뜩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 3>



<사진 4>

<사진3>은 <미안하다 사랑한다>(2004)에서 무혁이 죽은 뒤 1년이 지나 무혁의 무덤을 찾아가던 은채가 그 옆에서 자살하는 장면이다. 살면서도 늘 외로웠던 무혁이 너무 외로울까봐 은채는 호주 벨버튼까지 찾아가서 무혁 옆에서 죽음을 택한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받아 호주로 입양된 무혁은 이경희 미니시리즈의 버림받은 인물들 중에서 외로움을 가장 잘 형상화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러한 무혁의 결핍을 메워주는 것은 바로 은채이다. 은채의 사랑은 연정(戀情)과 모성(母性)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은채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무혁에게 연인 문지영과 어머니 오들희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물²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혁이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시작부터 이미 비극을 예고한다.

<사진4>는 <이 죽일 놈의 사랑>(2005)에서 복구와 은석이 함께 얼어 죽은 장면이다. 두 사람은 형 민구에 대한 복구의 죄책감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도 헤어졌지만, 결국 복구를 잊지 못한 은석은 두 사람이 마지막 하루를 보냈던 산 속에 가서 죽음을 택하고, 눈 속에서 은석을 찾아낸 복구는 밤새 은석에게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주지만, 결국은 함께 눈 쌓

인 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이 드라마에서 복구보다도 결핍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인물은 여주인공 은석이다. 은석을 위해 전복을 따러 갔던 엄마가 바닷가에서 벌어진 공비토벌작전에 휘말려 죽음을 당한 후, 은석은 전복을 보면 사흘 밤낮을 딸꾹질을 한다. 은석과 복구를 하나로 묶어주는 민구의 노래(“저 멀리 하늘에 구름이 간다/ 외양간 송아지 음메 음메 울 적에/ 고향을 그리며 울면서 간다/ 엄마를 그리면서 울면서 간다”)는 은석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촬영 중 전복을 보고 끝없는 딸꾹질을 하던 은석은 복구의 기습키스로 딸꾹질을 멈추게 되는데, 이는 복구가 은석의 결핍을 메우는 존재가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복구의 형이자 은석의 첫사랑인 민구의 존재는 역시 시작부터 이미 비극을 예고한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에서 강진과 헤어지게 된 지완은 강진의 어머니 차춘희를 찾아가 술주정을 한다.

지완: 어떻게 사셨어요? 살아지셨어요?

춘희: 뭐가?

지완: 우리 아버지랑 헤어져서, 다른 남자 만나, 강진오빠 낱구 부산이 낱구, 살아지셨어요?

춘희: 살았으니까 여기 있지.

지완: 아, 다행이다. 나두 살아지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그럼. 근데 왜, 산청에 돌아왔어요? 다 큰 아들 돌씩 데리고, 뭐 하러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춘희: 보고 싶어서, 못 잊어서, 죽을 것 같아서.

지완: 아, 큰일났네. 그럼 나도 언젠간 강진오빠 찾아가겠네. 아이, 아줌마처럼 진상 떨면 안 되는데. 멋지게 잊어줘야 되는데.

춘희: 뭐, 이년아? 진상? 그게 사랑이지, 어떻게 진상이냐?

지완: 진상이지,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구질구질하게, 다 끝난 걸 가지 고.

21) 윤석진, 『TV드라마의 현실성(reality) 확보 방식 고찰-KBS 미니시리즈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21, 2005, 348면.

춘희: 그게 어떻게 끝이 나? 그게 쉽게 끝이 나? 죽기 전엔 안 끝나.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16회) (강조-인용자)

지완은, 강진과 지완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신의 아버지 한준수와 함께 산청을 떠났던 춘희에게, 한준수와 헤어져서 살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 살았으니까 여기 있지 않느냐는 춘희는, 구질구질하다는 지완에게, 사랑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고, 사랑은 죽기 전에는 안 끝난다고 이야기한다. 한준수는 현실적 논리 앞에서 차춘희를 저버리고 눌러 앉았지만, 결국 30년이 지나서 아내를 버리고 딸의 사랑을 외면한 채로 차춘희와 같이 산청을 떠난다. 차상두와 채은환, 차무혁과 송은채, 강복구와 차은석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한준수와 차춘희의 모습이었을 터인데, 춘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랑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운명 그 자체여서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환경과 억압을 초월하여 사회로부터 이탈하려는 낭만적 동경에 기반하고 있는 낭만적 사랑은, 사실상 현실 속에서 완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²²⁾이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2007)와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2009)에 와서야 이경희는 이렇게 처절하도록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벗어난다. 비록 열린 결말이기는 하지만, 낭만적 사랑이 지향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결핍의 표지가 서로를 부르는 형국의 사랑은 이 두 편의 미니시리즈에서도 지속되며, 그 사랑이 지닌 운명성과 절대성이야말로 이경희 미니시리즈를 이끌고 가는 서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은 표면의 이야기로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취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움’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죽음

으로 이어지는 자극적인 결말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증대시킨다. 또한, 결핍된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운명 그 자체로서의 사랑, 절대적이고 하나 뿐인, 유일한 사랑은 낭만적 사랑 담론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환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준다. 이런 점에서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경희 미니시리즈의 장점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낭만적 사랑의 서사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낭만적 사랑의 서사에 ‘교훈’의 메시지를 담은 또 하나의 서사가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절묘하게 잘 엮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경희 미니시리즈의 장점이다.

3. 이면의 서사: 도덕 교과서적 가르침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경희의 드라마는 겉으로는 낭만적 서사의 담론을 통해 흥미로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교훈의 메시지, 보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거의 ‘도덕 교과서’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정도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의 도덕 교과서적인 가르침은 <상두야 학교 가자>에서부터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까지 아주 분명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족을 위한 희생, 둘째는 용서, 셋째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이다.

주인공들의 가족을 위한 사랑과 희생은 모든 작품에 드러난다. 이경희 미니시리즈의 주인공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가족을 버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랑한다. <상두야 학교 가자>에서 상두는 세라가 버렸던 딸 보리를 되찾아와서 보리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체비 짓까지 하면서 자신을 버렸던 삼촌과 함께 산다.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무혁은 6살의 지능에 머물러 있는 누나 서경과 조카 갈치를 돌본다. <이 죽일 놈의 사랑>에서 복구는 자신을 버렸던 형 민구가 식물인간이 되었음에도 포기

22) 장수익, 앞의 논문, 364~365면.

하지 않으며, <고맙습니다>의 영신은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버리지 않는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에서 강진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끝까지 지완의 엄마를 버리지 않는다.

이들이 가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들에게 ‘버림받음’의 트라우마가 너무도 깊기 때문이다.

① 민석: 보리가 없으면 은환이랑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환이, 니가 니 목숨보다 사랑하는 은환이 말이야.

상두: 여자 때문에 자식을 버리라고? 어이, 의사선생, 당신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자식이라는 거, 부모 사정에 따라 버리고 말고, 그런 물건이 아니야. 버려진 건 나, 지 엄마면 충분해. (<상두야 학교 가자>, 15회) (강조-인용자)

② 최윤: 왜 숨겼어 그럼, 지금까지? 내가 당신 아들이야, 당신이 버린 당신 아들이야, 진작 말을 하지, 왜 숨겼어?

무혁: 버림받는다든 게 어떤 건지 아냐? 버림을 받는다는 건 그대로 끝이라는 얘기야. 다시 돌아와 봤자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는 게 효도하는 거다, 그런 뜻이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14회) (강조-인용자)

③ 강진: 하루에도 수천 번씩 저를 다그쳤어요. 미친 놈, 왜 이려고 살아, 니가 한지용으로 살면 지완이도 포기해야 하는데, 지완이까지 포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등신 머저리처럼 살아? 니 어머니가 저지른 죄를 왜 니가 속죄하면서 살아?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개 뜯아이가 너처럼 살아? 차라리 나도 도망가 버리자, 내 어머니처럼, 지완이 아버지처럼. 이번 생에 한 번만, 한 번만이라도 나를 속이지 말구, 나만 생각하구, 내 감정에만 충실하구, 지완이만 보구, 그렇게 살아보자, 나두. 하루에도 수

만 번씩 지완이 손잡고 도망쳤어요. 정말...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 상처만 없었다면, 버림받는 게 어떤 건지, 그 상처만 몰랐다면, 정말 도망쳤을 거예요. 절 잡고 있는 어머니 손이 조금만 덜 따듯했어도,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이 조금만 덜 따듯했어도, 기꺼이, 기꺼이 도망쳤을 거예요. (하락) (강조-인용자)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16회)

①에서의 상두의 대사, ②에서의 무혁의 대사, ③에서의 강진의 대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처가 깊은지를 알 수 있다. “한 순간 연민으로, 치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착하고 예쁘고 불쌍한 여자 이영신, 그 여자 하나만 사랑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에이즈 걸린 애, 치매 걸린 할아버지까지 함께 보듬고 함께 상처받고 함께 고통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이에요.”(<고맙습니다>, 14회, 강조-인용자)라는 석현의 대사처럼,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족이 받는 상처와 고통을 함께 견안고 간다는 것이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받았던 버림받음의 상처야말로 이들로 하여금 가족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경희 미니시리즈에 등장하는 가족은 ‘대안가족’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두야 학교 가자>에 등장하는 삼촌-차상두-차보리(세라의 딸)와 공심란-세라(공심란의 친딸)-은환-진환(은환의 아버지와 공심란 사이의 아들),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오들희-최윤(입양아), <이 죽일 놈의 사랑>의 아버지-새엄마-차은석-남동생-여동생(아버지가 같은),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의 차춘희-강진-부산(아버지가 다른)은 완전하게 핏줄로 묶여 있는 가족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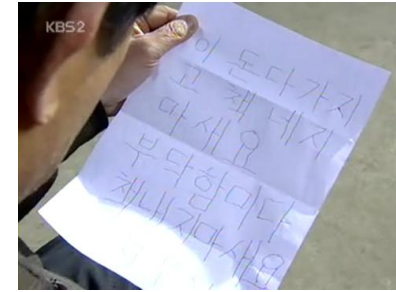
<사진 5>

이경희는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리는 핏줄에 대해서 작품 곳곳에 드러내고 있다. <상두야 학교 가자>에서 공심란은 차보리가 자신의 손녀임을 모르는데도 이상하게 끌리며,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오들희는 윤서경이 자신의 딸인지 모르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면서 눈물을 흘린다. <고맙습니다>에서 석현은 봄이를 본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게 가슴이 아프다고 느낀다. 또한, 석현모는, 영신과 봄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면서도, 멀리서 봄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지켜본다든가, 영신과 봄을 걱정한다든가, 봄이 에이즈에 걸리자 자기 보석을 팔아서 치료비라도 대줘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핏줄의 당김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신과 봄의 신발에 자신의 발을 맞추며 영신과 한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기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5>에서처럼, “꼭 핏줄이어야 됩니까? 가족이라는 게 꼭 혈육이어야 돼요?”(15회)라고 기서를 통해 직접적으로 물어봄으로써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가족이기주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는 작가의 마음은 그의 인물들로 하여금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상두와 무혁, 복구, 영신, 강진이 보여주는 가족-그 가족이 대안가족이든, 문체가 많은 가족이든 간에-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은 ‘용서’로 연결된다. 버림받았지만, 자신을 버린 부모를, 남자를, 세상을 용서하는 것.



<사진 6>



<사진 7>

<사진6>은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무혁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버린 엄마 오들희(이혜영 분)의 등에 대고 큰 절을 하는 장면이다. 첫사랑 지영 대신 머리에 총을 맞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무혁은, 너무 가난해서 자신을 버렸을 엄마에게 맞난 거 사주려고 한국에 돌아왔다가, 그 엄마가 아들 최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엄마 오들희가 너무나 아끼는 아들 최윤은 심장병으로 죽어간다. 그러나, 자신을 버린 것은 오들희가 아니라 오들희의 매니저였으며, 오들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음을, 또한 최윤은 자신과 자신의 누나 서경 대신 오들희가 입양해서 키운 아들임을 알게 된 무혁은 “사랑합니다, 어머니. 단 한 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미안하다 사랑한다>, 16회)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며 엄마 오들희의 등 뒤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한다. 그리고, <사진7>에서처럼 과거의 양심으로 오들희가 버린 남매에 대한 책을 쓰고 있던 민현석(신구 분)에게도 거액이 든 통장과 서툰 한글로 쓴 편지를 보내 제발 책을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고맙습니다>에서 영신은 자신과 봄이를 버린 남자 석현에게 “고마워. 나한테 봄이 보내준 거. 봄이를 낳고 키우는 일, 되게 되게 신나고 재밌는 일이었어, 안 믿겠지만. 우리 봄이가 없었으면 세상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다 니 덕분이야. 널 만날 때마다, 사실은,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

어. 원망이니 미움이니 그딴 거 아니구, 사실은,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화만 냈었는지 모르겠다.”(<고맙습니다>, 16회)고 고백한다.

용서는 자연스럽게 ‘감사’로 연결된다. 이는 <상두야 학교 가자>에도 그 원형이 담겨 있지만, 특히 <고맙습니다>가 잘 보여주고 있다. <고맙습니다>에서 감사는 가족, 나를 버린 사람을 넘어서 세상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으로 확대된다. 이는 영신의 할아버지(신구 분)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데,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늘 ‘고맙습니다’를 남발하며 내미는 ‘초코파이 情’이 대변한다.

이 작품에서 민기서는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안락사 사건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또한 여자친구 지민이 췌장암으로 죽으면서,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이 되는대로 산다. 하지만 봄이네 가족을 만난 후로 기서는 변하기 시작한다. 지선의 아버지가 사고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외면했던 기서는, ‘봄동이’(곰인형)를 달라며 끝까지 자신을 따라왔던 봄이가, 넘어진 지선을 일으켜 세워 옷을 털어주고 같이 울면서 자신에게 봄동이를 가지라고 하며 지선을 따라가는 것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지선의 아버지를 치료해준다. 이후 마치 주요한의 <사랑방손님과 어머니>에서처럼, 봄이네 집의 사랑방에 머물게 된 기서는, 버림받음의 상처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는 영신과 봄이 세상을 향해 늘 고마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특히, 할아버지의 확신은 기서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형.

기 서: 고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고맙습니다, 원수를 향해서도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딴 식으로 손녀를 가르치니까 맨날 그렇게 등신짓이나 하고 무시나 당하고 밟히거나 하고

할아버지: (쳐다본다.)

기 서: 밟혔으면 밟힌 만큼 갚아줘라, 당했으면 당한 만큼 갚아줘라, 이렇게 가르쳤어야죠. 그딴 마인드로 어떻게 살아오, 이 드러운 놈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 개빡다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할아버지: 네, 형은 개빡다구예요.

기 서: 아니, 내가 개빡다구가 아니라 세상이 개빡다구라구요.

할아버지: 네, 형이 개빡다구니까 세상이 개빡다구예요, 바보 똥개야.

기 서: (쳐다본다.)

할아버지: (눈치 보면서) 형, 초코파이 줄게요. (<고맙습니다>, 13회) (강조-인용자)

이 작품에서는 영신이나 봄이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가 많이 불리워진다.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려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위의 장면에서 기서는 세상이 뭐가 아름답냐고 할아버지에게 따진다. 이런 기서에게 할아버지는 네가 개빡다구니까 세상이 개빡다구인 거라고, 사람이 아름다우면 세상도 아름답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할아버지의 믿음 이 헛되지 않았음은 작품의 맨 마지막에 가서 드러난다.

할아버지는 죽음을 예감하고 죽기 전날 밤 마을사람들 집집마다 초코파이를 돌린다. 다 돌리지 못하고 집으로 업혀온 할아버지는 기서를 보며 눈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기서는 밤새 할아버지가 못한 일을 마저 한다. 할아버지의 장례 후, 봄이는 학교에 갔다가 자기 없이도 웃고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돌아온다. 그 모습을 본 영신은, 편견 없는 곳에서 봄이를 키우고 싶다는 이삿짐을 싸서 섬을 떠나려고 한다. 쫓아온 기서에게 영신은, 할아버지가 잘못 가르쳤다고,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그만큼 상처 받는 일도 없었을 거라며 사람들에게 대한 순수한 마음을 접으려고 한다. 그러나, 쫓아와서 ‘내가 잘



<사진 8>

못했다'면서 떠나지 말라고 매달리는 지선엄마와 이삿짐 트럭 바퀴 앞에 누워서 '우리는 초코파이를 먹고 핀 진달래'라며 길을 막는 박씨 아저씨와 여관집총각의 모습은 할아버지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위의 <사진8>은 바로 이 장면이다. 결국 마을사람들에 의해서 영신이네 이삿짐은 다시 집 안으로 옮겨진다.

버림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자신을 버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인간과 세상에 대한 믿음, 이러한 도덕 교과서적인 가르침은 이경희 미니시리즈가 주는 '감동'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 도덕 교과서적인 담론은 전면에 내세워질 때 크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경희는 표면에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덧입힘으로써 극적 재미의 성취에도 성공한다.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낭만적 사랑의 서사와 이면에 숨겨진 채로 드러나는 도덕 교과서적인 서사, 이 두 가지가 씨줄과 날줄로 절묘하게 얽힘으로써 이경희 미니시리즈만의 흥미와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다.

4. 이경희의 비관적 세계 인식

미니시리즈는 연속극과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 연속물에 속한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근대적 시간 규율의 일과표로부터 빠져나와 자신의 시간으로 향유하게 되는 미니시리즈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으로 구성된 낱알의 독자를 하나의 집합적 독자로 묶어내기 위해 낯설고 새로운 서사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내장한 채 등장하게 마련이고, 이렇게 미니시리즈가 갖고 있는 개방성이 초래하는 불안정성과 유동성은 텍스트를 대단히 역동적인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미니시리즈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해 무한한 상상력을 허락하는 유목(遊物)의 시공간인 셈이다.²³⁾

이렇게 미니시리즈는 무한한 상상력을 허락하는 유목의 시공간이기에 작가들에게 '도전'하고픈 영역일 것이다. 이경희가 지속적으로 미니시리즈를 쓰고 있는 것은 미니시리즈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자유로움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경희는 이 공간에 지나치게 처절하고 지독한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그런데, 겉으로는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취하고 있는 이 미니시리즈들의 이면에 이경희는 도덕 교과서를 펼쳐 놓는다. 가족을 사랑해라,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라,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을 믿어라. 그녀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하고 어떤 면에서는 '당위적'이다.²⁴⁾ 이는 "부와 명예는 없어도 살지만,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는 결국 사람과 사랑만이 희망이라고 믿어요."²⁵⁾라는 이경희의 소신이 육화(肉化)된 것이리라.

23) 박노현, 앞의 책, 233~244면.

24) 이렇게 강조되는 당위성은, 작가가 기독교이든 가톨릭이든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짐작하게도 한다. 특히, 많은 경우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죄책감'이라든가 그녀의 작품의 주요 주제가 '용서'라든가 하는 사실은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해준다.

25) 김주영, 앞의 글, 9면.

그러나, 사실상 이경희는 지독한 비관주의자가 아닐까? 그녀가 제비족, 해외입양, 안락사, 미혼모, 에이즈 등 사회성 짙은 이슈들을 다루고, 버림 받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으며, 에이즈 등의 이유로 쉽게 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이기심을 다룬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고맙습니다>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세계에 ‘동화’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이래야 한다, 세상은 이래야 한다는 건 그녀의 강박관념일 뿐, 이 세상에서 그것이 불가능함 또한 그녀는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진 9>



<사진 10>

위의 <사진9>와 <사진10>은 <상두야 학교 가자>의 맨 마지막 부분이다. 감옥에서 출소한 상두가 은환을 외면하고 뒤돌아서자 은환은 무작정 상두를 부르며 찾길로 뛰어들고, 은환을 구하려던 상두가 은환과 함께 차에 치이면서 두 사람은 죽음을 맞는다. 이 작품의 끝은 상두와 은환이 고향 남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과 수위로 있으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장면이 단지 환상일 뿐임을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다. 여기에서 상두와 은환은 ‘절망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올린다. ‘서글픈’ 세상과 ‘절망

없는’ 세상의 대비.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비관적 세계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서글픈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사랑밖에 없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저 세상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

5. 결론

앞에서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경희의 작가론을 시도해 보았다.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은 표면적으로는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경희 미니시리즈들의 주인공들인 결핍된 인물들에게는 서로의 결핍이 서로를 알아보는 표지가 됨으로써 그 사랑의 운명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은 더욱 더 강화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멜로드라마와 달리 죽음으로 귀결되는 결말은, 사랑의 그러한 성격을 더욱 더 부각시키고, 이들의 사랑을 치절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경희의 미니시리즈들은 이면에서는 도덕 교과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경희는 가족을 사랑해라,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라,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을 믿어라 등의 설교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지겨울 수도, 따분할 수도 있는 설교가 곁에 덧입혀진 낭만적 사랑의 서사 때문에 ‘흥미로움’을 잃지 않고 있다. 표면의 서사와 이면의 서사가 씨줄과 날줄처럼 절묘하게 교차하고 있는 것, 그래서 ‘재미’와 ‘교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경희 드라마가 성취해낸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 미니시리즈들에서 보이는 작가의 세계 인식은 비관적으로 느껴진다. 그녀가 사회성 짙은 이슈들을 다루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으며, 에이즈 등의 이유로 쉽게 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이기심을 다룬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사실은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 세상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

인 것. 그렇기 때문에 <고맙습니다>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세계에 ‘동화’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사람은 이래야 한다, 세상은 이래야 한다는 건 그녀의 강박관념일 뿐, 이 세상에서 그것이 불가능함 또한 그녀는 확신하고 있는 것.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상두야 학교 가자>(KBS 월화미니시리즈, 2003.9.15~2003.11.4)
 <미안하다 사랑한다>(KBS 월화미니시리즈, 2004.11.8~2004.12.28)
 <이 죽일 놈의 사랑>(KBS 월화미니시리즈, 2005.10.31~12.20)
 <고맙습니다>(MBC 수목미니시리즈, 2007.3.21~2007.5.10)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SBS 수목미니시리즈, 2009.12.2~2010.1.28)

2. 국내외 논저

- 강영희, 「김수현론」, 『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문화연구, 1996.
 김포천 외, 『김수현 드라마에 대하여』, 숲, 1998.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1: 멜로드라마』, 이론과실천, 2007.
 박노현,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9.
 윤석진, 「TV드라마의 현실성 확보 방식 고찰-KBS 미니시리즈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21, 2005.
 _____, 『김삼순과 장준혁의 드라마 공방전』, 북마크, 2007.
 이경숙, 「김수현 드라마의 수사학적 효과 산출 방식 연구1」, 『한국극예술연구』 25, 2007.
 이다운, 「노희경 드라마의 등장인물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9.
 이주라, 「200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에 그려진 사랑의 모습-네 멋대로 해라>, <발리에서 생긴 일>, <미안하다 사랑한다>」,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1: 멜로드라마』, 이론과실천, 2007.

- 장수익, 「나도향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문제」,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 1999.
 Giddens, A.,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1996.
 Salsby, J.,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길 역, 민음사, 1985.

Abstract

A Study on Lee Kyung Hee's way of Writing Dramas

Kim Yun Jeong

This thesis is a try to build an evaluation of a writer Lee Gyeong Hee, who became famous by several popular mini-series broadcasted on TV. Her works show the pattern of romantic love, which are proceeded by heroes who have experienced loss of loved ones or being abandoned. The deficient problems in heroes are not a barrier, but become signs to each other and contribute to enforce the unavoidable love. In contrast with normal melodramas, her works usually ended with tragedy, which gives emphasis to romantic love. Her works are full of many moral teachings, such as love your family, forgive those who hurt you, and believe that man is good. The success factor of her works is the skillful combination of "fun" and "moral lessons", that is, making dramas interesting by covering with romantic love events the moral teachings which one may feel boring. Even though the writer deals with social issues like AIDS patients and adoptions to foreign countries and tries to show the bright side of them, she seems a pessimist because she hints that it is impossible to make a world where what she thinks important are realized by calling her dramas "fairy tales".

Key words : romantic love, deficiency, death, textbook of morals, pessimistic understanding of world

접 수 일 : 2010년 8월 31일

심사기간 : 2010년 9월 1일~9월 30일

게재결정 : 2010년 9월 30일